

민간공원 수사됐?

광주시 청렴도 최하위 '5등급'

권익위 종합청렴도 발표... 지난해 3등급에서 2계단 하락

광주시의 올해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등급 떨어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으로 지난해 3등급보다 2등급 떨어졌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

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광주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 전 분야에서 모두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 내부청렴도는 2등급 하락한 5등급, 정책고객 평가는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등급은 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곳에 불과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민간공원 특례2단계 과정에서 발생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각각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에서 ㈜호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시 고위 간부 자택, 우선협상대상 사업자인 ㈜한양, ㈜호반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모의혹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동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종강식 개최

광주 동구가 오는 12월 동구치매안심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종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천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종강식은 올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활동방향에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주민 다수가 폐경이후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효진 광주기독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초청해 '안경 여성의 건강관리'에 관한 주제로 건강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메르스 선제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광주 서구는 9일 메르스 대응 유공기관으로 선정 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서구는 지난해 메르스 확진자 국내 발생 당시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접촉자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메르스 대응·관리로 감염·전파를 사전 차단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메르스 발생과 유행에 대비한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메르스 홍보와 교육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남구 "숲에서 보낸 나날, 사진으로 만나요"

광주 남구는 올해 제봉산과 풀빛 근린공원 유아 숲 체험원에서 진행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을 사진첩에 담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남구청사 1층에서 2019 남구 숲 교실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남구 숲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 45개 기관이 참가한다. 전시회에 출품된 사진은 총 56점이다. 유아 숲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진은 총 36점이며,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20점도 전시된다.

북구, 복지행정상 시상식서 4개 분야 장관상

광주 북구는 '2019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4개 분야에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최우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최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우수)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우수)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8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포상금 총 8000만원을 받았다.

광산구,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9일 광주 광산구가 구청에서 상반기에 이어 63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위생감시원의 임무·역할 이해, 지도점검 전문성 강화, 활동 애로·건의사항 토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

교육은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식중독예방관리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감시원들이 이번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식품업체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청렴도 '2등급'...김영록 지사 이후 2단계 상승

하위권에서 일약 '우수기관' 경총...청렴생태계 조성 등 전방위적 노력 '주효'

그동안 하위권을 맴돌던 전남도의 청렴도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단계나 경총 뛰어오른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기관 내부 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았으나, 민선7기 김영록지가 출범한 첫 1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2019년 평가에서 당당히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모든 평가 분야에서 전년보다 상승했다. 특히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청렴도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전남도가 2019년을 '청렴 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취약 분야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매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조사에서, 민선7기 출범 후 15차례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1위, 올해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8차례 1위를 차지한 결과가 청렴도 평가



까지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청렴도 2등급 결과는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한 전 직원의 염원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올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생태계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전문체육인 vs 정치인...전남체육회장 선거 '열전'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박철수 전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왼쪽)과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 박철수 전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맞

붙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기자회견이 9일 열렸다.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후보는 전문체육인과 정치인 출신이라는 각기 다른 타이틀에 맞게 나름의 장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회견에 나선 박철수 전 부회장은 김재무 전 의장에 대한 김영록 전남지사 지원설을 의식한 듯 "김영록 지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 상임부회장으로 부임했다"며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역에 대해 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유도로 체육에 입문해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34년 동안 카누부를 이끌고 88서울올림픽 운영위원,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지낸 경력을 내걸으며 전문 체육인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어 회견에 나선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장은 동광양시 유도회 전무이사, 광양시 배구협회장, 전남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회위원장 등 체육과 정치 분야의 경력을

두루 내세웠다.

김 전 의장은 "체육회장 자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며 "전남체육회를 잘 이끌어 17개 광역단체중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단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후보당 15분의 제한시간 안에 정견발표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선거기간 동안 접촉이 금지된 대한체육회 규정을 내세우며 후보간 사생활영도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